

7
2024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350



제46회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식



COVER DESIGN
제46회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양양소식 · 350호



| 발행일 2024년 7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2024. 7

Vol. 350

희망양양

- 4 기획특집 · 눈앞에 다가온 오색케이블카, 설악을 새롭게 담다.
- 8 함께 가는 길 · 양양 서면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구룡령 옛길 여정
- 12 양양은 지금 ·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2부 양양군 우승의 쾌거로 마무리
· 양양 여행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혜택이 가득!
- 15 양양한컷 · 한 컷으로 보는 양양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 ·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 18 향토사 이야기 ·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 양양성당 (1)
- 20 양양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4차 정례회 개최
· 2024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77억 원 규모 지원
· 양양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
·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 양양 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실시
·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모집
· '안전한 여름나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가동
· 고품질 체리 출하 첫걸음 '체리 품평회'

열린양양

- 23 나눔의 기쁨 · 고향사랑기부금 / 인재육성장학금 / 이웃돕기성금
- 24 문화마당 · 이 달의 추천도서 / 시 /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 26 알림마당 · 건강알리미 /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 · 함께해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angyanggun_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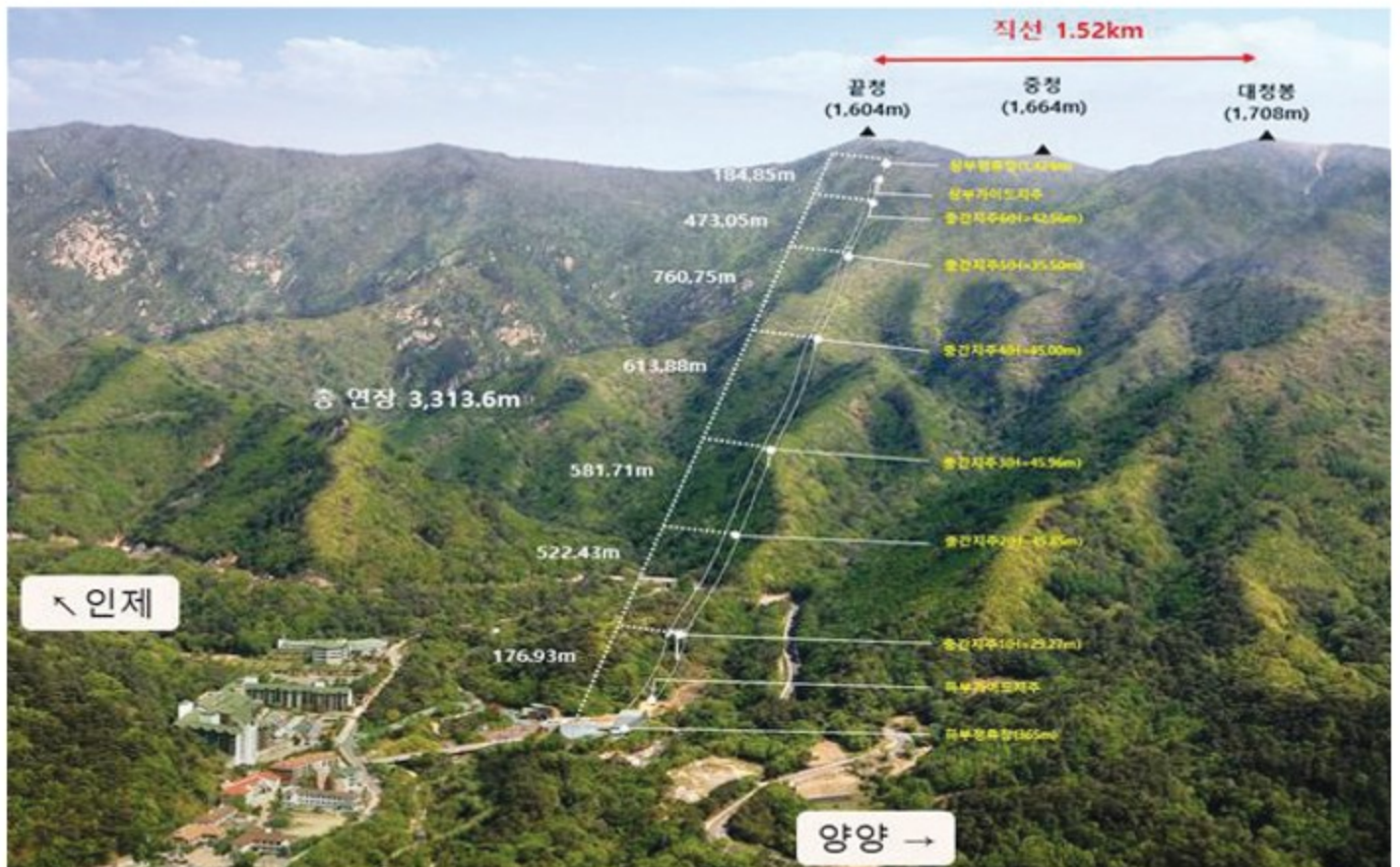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mileug@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눈앞에 다가온 오색케이블카, 설악을 새롭게 담다.

지난 2023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양양군이 지난 6월, 10일 전기소방통신공사 개찰에 이어 24일 공사에 착공,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했기 때문이다. 이달 7월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를 지정, 현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설악을 담은 케이블카 사업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환경친화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전경(가상이미지)

2026년 하반기(9월) 완공 예정인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오색리 466번지 하부정류장에서 시작하여 끝청 아래 해발 1,430m까지 3.3km 이어진다. 시점과 종점을 제외하고 노선에는 모두 6개의 지주가 설치되며, 8인승 곤돌라 53대가 편도 15분 정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825명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블카 종점에서 대청봉까지 직선거리 1.52km로, 케이블카의 완성과 함께 누구나 더욱 쉽고 안전하게 대청봉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노약자를 비롯해 신체적

불편함으로 이동이 제한적이었던 이들과 설악의 대청봉을 조망하는 감동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총 1,172억 원에서 이미 지출된 예산을 제외하고 향후 공사비, 관급자재, 감리비 등에 1,06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전액이 균비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미 확보한 예산과 향후 신청 예산을 합하면 373억 원이고, 도비 200억 원을 합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균비가 아닌 의존재원이다.

이미 적립된 재정안정화 기금과 3년간 매년 약 50~60억 원의 신규군비가 투자될 것이고,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공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와도 부합하다.

방문객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줌과 동시에,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 전방위에 걸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전문가들은 양양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관광,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이익을 가져올 오색케이블카 사업



▲상부정류장(가상 이미지)

구체적으로는 케이블카 운행과 함께 케이블카 정류장과 관내 및 해안까지의 교통편 개선에 따라 산악과 해안 지역 사이의 거리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함께 늘어나고, 산악관광과 7번국도를 끼고 있는 해양관광이 조합을 이루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도로망과 교통편의 신설도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양양군은 낙산지구의 도심화와 동해북부선 역세권 조성, 여객터미널 설치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연어자연산란장과 연계, 기존 관광명소에 뚜렷한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색케이블카로 만나절만에 대청봉을 감상하고, 읍내로 진입하면 남대천 물줄기와 양양 장을 구경할 수 있게 된다.

환경친화적인 건설과 운영·관리로 우려를 견어낸 오색케이블카

그동안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양양군은 이런 우려를 지우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적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더욱 친자연적인 양양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환경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월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후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지난 봄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양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환경 동아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바이오블리츠(bioblitz,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 지역축제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 종합계획도



한편 자연친화적인 주변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색리 466-3번지 일원에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안도 마련했다. 현재 시설설계 용역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시행되며, 케이블카 완성 시기인 2026년에 맞춰 함께 오픈할 예정이다. 보행데크, 생태탐방로, 풀내음쉼터 등을 함께 구성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성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은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며 관련 부처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범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케이블카로 만들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테마 월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미리 만나는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미리 느껴보고 이를 널리 알릴 순 없을까?’ 이런 마음을 담아 양양군은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양양 오색케이블카 월드’를 구축해 전 세계인이 미리 오색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색케이블카 워드는 하부정거장, 제1정거장, 제2정거장, 상부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거장마다 특색있는 콘텐츠와 게임 등을 운영하여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메타버스 속 세계에는 오색케이블카뿐 아니라 양양의 해변과 연어축제 등 양양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과 시설에 대한 정보도 가득 담겨있다. 또 오색케이블카 역사관과 홍보관, 양양 멸종동물전시관, 양양10경 홍보관 등 여러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가상 이미지)

가상 전시관도 구경할 수 있다. 이처럼 가상세계 속에서 놀이하며 즐기는 가운데 누구나 오색케이블카와 함께 양양군과 친숙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양양군은 가상현실이지만 오색케이블카 월드를 통해 많은 사람과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이 사회·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로서 요즘 MZ세대의 놀이문화로 유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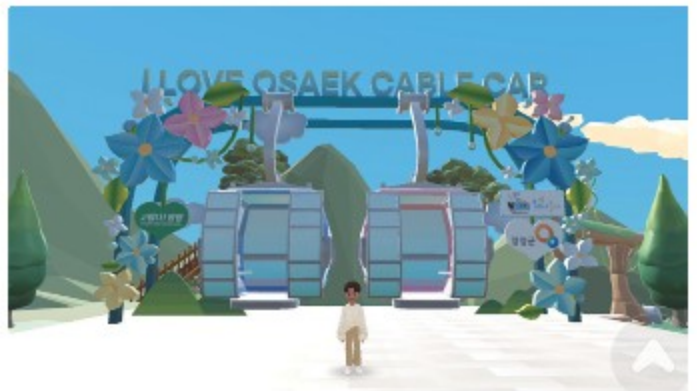
(글·사진: 편집부)



▲바이오블리츠 활동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메타버스 플랫폼 제레토 앱 "양양 오색케이블카 월드"

양양 서면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구룡령 옛길 여정

사계절 언제나 멋진 양양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은 끊임이 없다. 이번 7월호에서는 서면을 들여다보았다.
구룡령 옛길을 따라 이어지는 서면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한다.

7월 여름의 양양, 동해안에 흠뻑 빠진 당신께 양양 서면의 초록이 깊은 산과 계곡의 힐링을 선사한다.
서면 구룡령 옛길은 서면사무소에서 홍천군과의 경계 부근인 갈천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56번 국도와 후천 물길을 따라 향한 20km 정도의 거리이다. 길옆 후천의 맑은 계곡을 끼고 앉은 예쁜 마을들이 모두 휴양지나 다름없다. 자동차로는 하루만에 모두를 둘러 볼 수도 있는 길지 않은 길이지만, 여름 휴가를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은 곳이다. 그중 이번에 소개할 곳은 아래의 순서로 차근차근 길을 따라 내려간다.



하나의 정원과 같은 마을에서 시작하는 여정



▲상평초등학교

여정은 서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에서 시작한다. 면사무소와 경찰서, 우체국, 의용소방대, 보건소, 그리고 초등학교가 눈에 들어오는 작은 마을이다.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걷는다. 짧은 길이지만 집집마다 심은 풀과 나무가 좁은 아스팔트 바로 옆으로 조성되어 마치 마을이 통째로 하나의 정원처럼 느껴진다.

흔치 않은 키가 큰 개잎갈나무가 와 보라는 듯, 상평초등학교에서 길가 쪽으로 서 있다. 가까이 가보면 아름다운 교정이 맞이하는데,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잠시 교정을 걸거나 잠깐 앉았다 가면 좋겠다. 학교 뒤로는 초록의 산이 전체 교정을 감싸는 듯하고, 잔디 운동장과

예쁜 색의 교실 벽면이 깔끔하다. 운동장 건너편 교실 쪽에 자리 잡은 벚나무 고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매일 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친근한 나무이겠지만, 처음 보는 여행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근사하다.

“서면은 양양의 6개 읍면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다를 넘어 산과 계곡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구룡령 옛길을 따라 이어지고, 안으로는 정족산 등산코스도 있지만, 워낙 험한 곳이어서 함부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해당마을은 시골마을로서는 관광자원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룬 곳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마을들이 자치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소영 서면장의 설명이다.

다정하고 정겨운 송천떡마을



▲송천떡판매점

“안으로 들어가시면 넓은 마당이 있는 큰 기와집이 있어요. 가시면 사무장님이 계세요.” 마을 진입로에 있는 떡가게이자 안내소에서 인사를 한다. 여기서 들은 대로 길을 따라 들어가니 여기저기 예쁜 주택이 보이는 정겨운 시골마을이다.

이곳이 떡마을인 건 옛날부터 떡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농촌체험여행 브랜드인 팜스테이로 지정되어, 지금과 같은 주민공동체를 갖추게 되었다. 농가에서 숙식하며 농촌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는 농촌관광 형태다.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콩 등 천연 재료로 옛날 방식으로 떡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 전통놀이와 국악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성유나 사무장은 마을 주위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떡을 먹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말한다. 마을길을 따라 여기저기 둘러보며 시골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힐링이 따로 없을 것이다. (체험문의 033-673-7020)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에 더욱 유익할 에너지팜



▲양양 에너지팜

송천떡마을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아 오른쪽으로는 양양 에너지팜, 왼쪽으로는 호수가 보인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인 양양 양수발전소의 홍보관이자 물의 힘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체험장이다. 뿐만 아니라 풍력과 원자력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관해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여행에서 둘러 보면 더 유익한 곳이다. 9시~17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체험문의 033-850-2344)

서림사지 삼층석탑과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좌) 삼층석탑(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인 서림사지 삼층석탑을 찾아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로 향한다. 교정에는 삼층석탑이 전시되어있다. 운동장에는 벚나무와 자두나무 고목이 분교를 지키듯 자리 잡고 있다. 누구라도 쉽게 봄철 벚꽃과 자두 꽃이 만발한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는 봄이면 교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허락하곤 한다.

“아이들은 통학택시로 등교합니다. 분교 학생들을 위해 군에서 편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예술꽃’이라는 예술특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미술활동과 악기를 다루는 음악활동이 자랑입니다. 또 텃밭과 저전거라이딩, 캠핑 등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아이들과 가족처럼 즐겁게 지내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자 6학년 담임인 이성몽 선생님의 학교 소개다. (신입생 및 전입학문의 033-673-8764)

* 서림사지 삼층석탑과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교정에 자리 잡은 이유는 1965년 근처 논에서 발견되어 교장 선생님과 주민들이 교내로 옮긴 이유 때문이다. 모두 우수한 조각품으로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레포트를 체험할 수 있는 해담마을



▲해담마을 물고기맨손잡기 체험

‘첨첨산중에 해를 담고 있다.’는 예쁜 뜻의 해담마을은 마을 자체가 하나의 체험관광시설이나 다름없다. 후천을 흐르는 맑은 물이 얇고 넓게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아 이를 배경으로 체험지를 만들고, 201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서분교 맞은편 길을 통해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차장과 매표소 등 체험시설임을 알린다. 통나무 방갈로와 펜션이 눈에 들어오고,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다. 그 뒤쪽으로 후천 계곡이 흐르는데, 맑은 물에다 넓고도 얇은 계곡이 좋다. 해담마을 안내책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골마을의 편안함과 동시에 자연에서 즐기는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한” 가족 여행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곳의 체험시설은 특히 학교 단체의 수학여행과 체험지로 각광 받고 있다. 최근 수도권 소재 학교에서도 많은 방문이 이어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륙양용차, 뗏목, 카약, 물고기맨손잡기, 활쏘기 등 다양한 레포트로 구성되는데, 수륙양용차를 타고 계곡을 달리는 체험이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다. 7~8월 한여름 성수기는 주로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성수기 앞뒤로는 여러 학교의 체험 스케줄로 꽉 차 있다. 일별 자세한 프로그램과 식사 구성이나 비용은 마을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체험문의 033-673-2233)



한여름에 더욱 찾게 될 얼음굴(황룡마을)



▲얼음굴 정상

황룡마을 역시 마을 전체가 휴양처다. 여러 펜션과 민박에서 머물며 서면의 자연을 접할 수 있지만, 얼음굴에 한번 다녀오지 않으면 이곳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다. 길가에 넓은 주차장과 기와집이 있고, 황룡마을 표지가 크게 보인다.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사이에 ‘얼음굴 가는 길’이라고 쓰인 작은 표시가 있다. 기와집 뒤로 흐르는 계곡을 배경으로 얼음굴 등산로 안내판도 곧 찾을 수 있다. 마을 입구에서 얼음굴까지 1.5km로 가까운 거리지만 두 군데 정도는 경사가 제법 급하다. 하지만 심마니폭포, 제실바위, 부부이음바위 등 세 곳의 볼거리가 적당히 배치되어 있어 즐기며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다.

‘심마니폭포’라는 이름에서 이곳이 심마니들이 오르는 깊은 계곡 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 바로 위의 ‘제실바위’는 산으로 드는 심마니가 부정한 기운을 털고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아주 기원이 오래된 곳으로 선조 때부터 화전민들이 더운 날 휴식을 취하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5월까지 녹지 않은 눈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름철 입구에서 온도를 재어 보니 7~8도로 추울 정도입니다. 원래는 발길을 딛기 어려울 정도의 오지였던 곳이지만, 도 사업비로 지금의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황룡마을 이종구 이장의 설명처럼 깊은 오지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등산로는 깊은 숲속의 정취로 매력에 가득하다. (체험문의 032-672-0025)

* 얼음굴은 땅속 돌 사이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천연 에어컨이 되는 것과 같다. 전문용어로 ‘자연대류설’로서, 얼음을 얼게 하는 겨울의 찬바람이 지하의 돌을 차갑게 만들고, 이 서늘한 기운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금동보살입상이 발견된 선림원지



▲선림원지 터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출처 국립춘천박물관)

황룡마을에서 나와 또 아래로 향하면 국립 미천골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다. 자연휴양림 안에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선림원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도록 하는 기운이 있다.

대표소를 통과해 계곡과 함께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선림원지라는 표지와 함께 왼쪽으로는 돌계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계단을 오르면 산속에 이런 곳이 있다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나타난다. 드넓은 초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곳이 모두 절터였기 때문이다. 절터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 444호), 석등(보물 제 445호), 홍각선사 탑비(보물 제 446호), 승탑(보물 제 447호)에 다가가 하나하나 살펴다 보면, 감동한 만큼 시간이 정지한다.

석등이 있는 곳까지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앞으로는 넓은 절터와 계곡 너머 짙푸른 숲이 펼쳐진다. 형형색색의 탕화로 단장한 멋진 절도 좋지만, 절터의 공허함속에서 머릿속으로 과거의 모습을 구성해 보는 경험도 신비롭다. 절터를 훑고 지나가는 계곡의 바람이 분명 천 년 전 통일신라의 그것과 같을 것이다.

* 선림원은 900년 경 산사태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선림원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오는 7월 28일까지 단독 전시 중이다. 입상은 출토지가 명확한 통일신라의 소형 금동상 가운데 가장 크고, 대좌와 광배, 장신구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국보급 걸작으로 주목받았다. 박물관은 '천 년 넘게 땅속에 묻혀있던 서러움을 보여주듯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벼운 등산로가 되는 갈천숲길(갈천약수)



▲갈천약수터(출처:한국관광공사)

“오색약수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 갈천약수는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예요.” 왜 그런지 묻는 질문에 이소영 서면장은 세고 특별한 맛 때문 이란다. 어찌나 강한 쇠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경험하면 누구나 대번 알 텐데 반드시 한번 경험하기를 추천한다.

맛을 보기 위해서는 제법 숲길을 올라야 한다. 오래된 물푸레나무,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 가래나무로 숲속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느릿한 걸음으로 30분 정도를 걷는데, 두 번째 철 다리를 건너 조금 더 오르면 약수터다. 생각보다 작은 약수터 웅덩이의 뚜껑을 여니 주위가 붉다. 물맛을 보니 탄산과 함께 강한 쇠 맛이 느껴진다. 놀라 다시 한번 바가지의 물을 들여다보아도 맑은 물일 뿐이다. 갈천약수는 철을 비롯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을 다량 함유해 위장병에 특히 좋다는 소문이다.

약수터를 오르는 이 길은 사실 옛날 삭도에서 출발하는 구룡령옛길을 통해 정상인 옛구룡령(1,089m)에 올랐다가, 백두대간 코스를 통과한 후 다시 갈천등산로 정상을 통해 약수터 방향으로 내려오는 등산로의 마지막 부분이다. 깊은 산 전체를 느끼고 싶다면 약 8km의 오지 등산코스를 추천한다. 〈글·사진 : 편집부〉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2부 양양군 우승의 쾌거로 마무리

- 선수단과 방문객 등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화합의 장 -
- 세심한 대회운영과 친절한 자원봉사에 호평 -

'뺨어가는 양양에서 하나되는 강원'의 힘!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열린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도내 18개 시·군 체육인과 임원 등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체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케이블카를 형상화한 특색있는 성화 점화로 많은 군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점이 화제가 되었다. 6월 4일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유공자 시상을 비롯해 대회 성적 발표와 종합 시상을 진행하고, 차기 개최지인 삼척시로 대회를 전달한 후 성화를 소화하며 4박 5일간의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폐회식

2부 우승의 쾌거와 15종목 신기록 갱신

1부에서는 춘천시(4만 7,423점)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로 강릉시(4만 5,785점)가 2위, 원주시(3만 9,336점)가 3위를 차지했다. 2부에서는 양양군

이 4만 2,715점을 차지하여 종합우승을 하였고, 횡성군(2만 7,816점)이 2위, 평창군(2만 465점)이 3위에 올랐다.

또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양 출신 선수들이 출전하여 사격, 태권도, 핀수영 종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친절한 손님맞이와 개성있는 대회 진행



▲대회 자원봉사자

이번 대회는 개최자인 양양군민들의 성원과 친절한 손님맞이가 크게 기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양양군체육회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진행에 데 큰 힘이 되었다.

양양군청과 속초경찰서를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에서도 주요 행사장과 경기장의 원활한 교통·주차 등 전체 대회 일정을 무사히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였다. 특히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경기장 안내, 음료 제공, 환경정비, 경기운영 보조 등 경기장 곳곳에서 동분서주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공을 세웠다.

문화관광 면까지 짜임새 있는 준비



▲웰컴마켓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 등 전체적 운영에서도 짜임새 있는 진행을 보였다. 개최 행사 등을 통해 양양과 강원의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 관광을 접목, 참여한 모든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대회 기간 중 양양종합운동장과 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웰컴마켓(Welcom Market)'과 다양한 공연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양양문화재단 주관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에서의 야외사진 전시, 성악 및 악기연주 공연, 버스킹 공연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러한 행사들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대회 기간 내 양양을 방문한 이들을 들뜨게 하고, 즐겁게 했다.

모두가 함께 이룬 '화합체전'으로 자긍심 높인 체육대회



▲경기 모습(태권도)

이번 대회의 성공 개최와 도민 화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양양군체육회를 비롯, 관내 기관·단체와 온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화합체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의 위상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어느 누구도 양양군이 우승할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41개 종목 중 35종목, 역대 최고로 많은 선수가 출전하여 금 199, 은 109, 동 87개를 획득 42,715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로 종합 1위를 달성하여 뜨거운 호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일선 실무를 맡았던 양양군체육회 김동올 사무국장은 군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대회기간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이 부상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원했던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여행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혜택이 가득!

- 양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자 공모 선정 -
- 로컬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 -

양양군이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에 활력을 주고,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하는 지역의 명예 관광주민증이다.

원하는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신청하거나 앱으로 다운받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이를 정해진 가게나 식당 등에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가진 사람은 숙박/식음/관람/체험/쇼핑 등 5가지 유형의 지역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13건의 관광주민증 할인 혜택을 준비해 지난 6월 17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지역업체와 추가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로컬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관광형 생활인구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입 및 발급 방법

- 스마트폰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신청 / 웹 :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에서 신청

■ 양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자 및 상세 내용

				
코랄바이조션 스타크루즈	웨이브릭스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레포밸리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화 예약 시 식사 및 음료 10% 할인	고고양양 앱 예약 시 시설 이용료 10% 할인	홈페이지 예약 시 비수기 평일 숙박료 20% 할인(현장 페이백)	잠리안산숲속기차 성수기(7~8월, 금·토·일, 공휴일) 10%비수기 20% 할인	황포돛배, 카누, 보트 10% 할인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0 033-630-7630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10 033-673-3383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033-670-2644 www.toresthio.go.kr/indvz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송이벨리자연휴양림 내 033-673-2468	양양군 양양읍 조신리 95-45 0507-1462-0983
				
카페 등치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오색그린아드 호텔	양양새활용센터 DASH 프로그램	
음료 10% 할인 *디저트 제외	토기복원체험비 2천원 할인	전화 예약 시 스탠다드 및 스위트스탠다드 숙박료 20~50% 할인	탄산온천대인 5,000원 할인 탄산온천+파동욕장(대인) 7,000원 할인	
양양군 양양읍 조신리 95-45 0507-1462-0983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033-670-2443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34 (숙박) 033-670-1000 / (탄산온천, 찜질방) 033-670-0880	사진 예약 시 다시해보를 만들기 체험 10% 할인	
				 <p>할인혜택 내용과 이용방법(영업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양양새활용센터	샌드카롱	마음이 통해	레인트리	
업사이클링제품 10% 할인	음료 10% 할인(디저트 제외) *1만원 이상 구매시 호텔주차권 제공	양양 오픈마켓 10% 할인	음료 10% 할인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10 033-673-3321	양양군 강변면 낙산사로 73 낙산비치호텔 1층 0507-1383-0855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71-1 2층 0507-1369-0524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4 010-3508-9898	



1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떨어지는 양양에서 하나되는 강원인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월 31일(금)부터 6월 4일(화)까지 5일간 열린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1부 춘천시 우승, 2부 양양군 우승)

2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목) 현산공원 충혼탑 앞에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3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난 도민체전의 열기를 이어가며 6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3일간 개최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모범선수단상 수상 양양군)

4 큰별샘 최태성 강사 강연, 「2024 양양 컬처클럽」

군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2024 양양 컬처클럽」 첫 번째 시간이 6월 15일(토)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큰별샘 강사의 강연으로 개최되었다.

5 제46회 양양문화제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6회 양양문화제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양양남대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의 주요 일정을 진행했다.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장,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장은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동술)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오의장이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양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와



조례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양양군의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양군 지역화폐 발행 건의, 군소식지에 소상공인 활동사항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사무실 지원 및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등 불가상승 및 경기침체, 고금리로 악화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오세만 의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성료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양양군에서 열린 제 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체육행사로, 양양군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대회 결과 1부에서는 춘천시, 2부에서는 양양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장은 대회 준비과정에서 당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준 양양군 공무원들과 청결, 위생, 친절을 실천해 주신 숙박업소와 음식점소 관계자분 그리고 선수단, 임직원,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양양군민들의 노력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대회가 양양 지역에 활기와 지역 생활 체육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양군의회 이종석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패 수상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통한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과 강원교육자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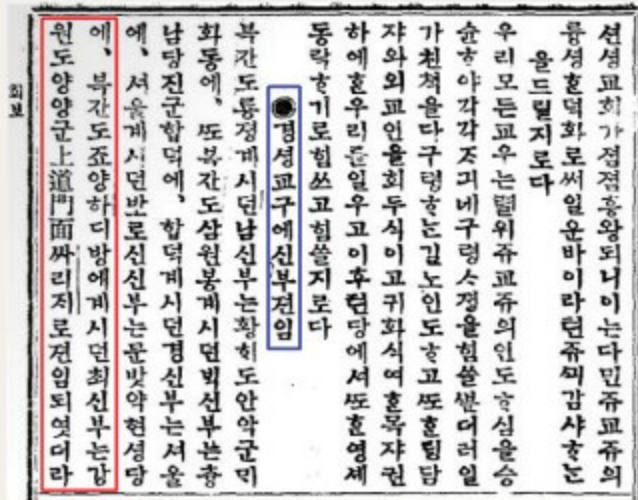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의원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 대표발의 및 '양양군 교육 발전을 위한 공청회' 좌장 등을 수행하였고, 농어촌유학 등 지역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이종석 의원은 "우리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교육기관, 지역주민(학부모)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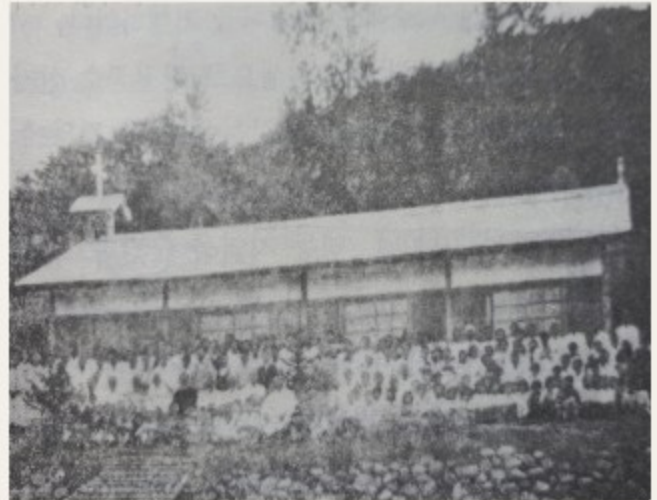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 양양성당 (I)

“900여 명 영동 교우/즐거울세 오늘이여//자고이래 처음 되는/두 분 신부 환영일세
 //(중략)//신부 신자 새로운 정/도문동에 빛나도다”

이 노래는 1921년 6월 20일 미사 후에 열린 사제 환영식에서 강릉 교우들이 부른 환영가 중 일부이다. 양양 상도문리 싸리재에서 개최한 환영식에는 북쪽의 통천에서부터 남쪽의 강릉과 정선까지의 신자들이 모여 부임한 최문식 신부와 이철연 보좌신부를 환영하였다. 노랫말에 나오듯 양양은 자고이래(自古以來) 영동지역에 처음으로 성당이 세워진 곳이다.



최문식(베드로)신부 양양 상도문리 싸리재성당 부임 기사 (경향잡지 1921. 5. 15일 통권469호)



싸리재 도문공소 강당 축성식 기념사진 (1935. 6. 24.)

영동지역의 가톨릭은 1866년의 병인박해 무렵 외지에서 온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양양은 충청도 제천의 배론교우촌에 살던 이 베드로 등 신자들이 양양 화일리 범방이골로 피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충청도 청주에 살던 오광선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피해 강릉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오춘영이 병인박해 때 은용골(강현면 중북리)로 이전 정착하였다는 설도 전한다. 다른 지역의 천주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양양 지역의 신자들도 여러 교우촌에서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가 열리며 종교 자유도 일부 부여된다. 양양의 교우촌들도 공소를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띤다. 1882년 경에는 화일리(쉬일)에, 1887년 경에는 상도문리 싸리재에, 1899년 경에는 명지리에도 공소모임이 생겼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장승골(장승리)과 중바우(정암리) 및 학야골(고성 학야리) 등에도 공소 모임이 있었다. 공소 모임은 여러 곳에 있었으나 영동지역에 공소 집이 있었던 곳은 상도문리 싸리재와 금광리(강릉 주문진) 두 곳이었는데 이 두 곳은 나중에 영동지역의 제1호 제2호 본당이 된다. (공소 :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신자들의 공동체. 당시에는 별도의 건물 없이 신자들의 사가(私家)에서 공소예절을 지내기도 했다.)

1890년부터 영동지역의 공소들은 함경도의 원산본당과 안변본당의 프랑스 신부들이 관할하였다. 양양에 본당이 설립되기까지 안변본당의 제4대 주임이던 블라두 신부와 제7대 주임인 튀카 신부의 공로가 특별히 크다. 블라두 신부는 불편한 여건에도 7년간 1년에 두 번씩 영동의 공소들을 방문하였고 튀카 신부는 적극적인 선교로 교인을 540명에서 900명 가까이 늘렸다.



성내리성당 축성 당시 모습
(1940. 1. 28.)

영동지역의 신자가 늘어나고 신자들이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자 튀카 신부는 이를 주교에게 보고하였고 서울교구는 1921년 4월 17일부(음력, 양력으로는 5월 29일)로 양양지방에 본당을 세우기로 하였다. 초대 주임으로 최문식 신부를 임명함으로써 영동지역 최초의 본당이 설립되었다.

최문식 신부는 1921년 5월 상도문리 싸리재에 있는 성당으로 수리한 가옥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해 10월 주교로부터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년 후인 1922년 교통상황과 신도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시내와 가까운 서문리로 본당을 이전한다. 서문리 성당은 지금의 문수사 부근에 있었는데 1936년 대홍수로 건물이 침수되자 일제(日帝) 치하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1940년 현재 위치 성내리로 이전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서문리 성당에서 새로 부임한 이광재(디모테오)신부와 이임하는 유재옥(프란치스코)신부 기념사진 (1939. 7. 25. 경)

<글·사진 : 양양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4차 정례회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6월 19일 홍천군(비콘힐스 클럽하우스)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4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업종 확대 건의,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건의 등 총 6건이었고, 춘천 국제태권도대회,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 제13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 등 총 11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77억 원 규모 지원

- 업체 유형별 5천만 원 ~ 5억 원 한도, 2년간 이자차액 3% 보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한다.

※ 양양군청 홈페이지 > 군정소식 > 공고/고시 > 고시공고번호 제2024-503호

올해 지원 규모는 대출금 기준 77억 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용도로 해당 업체가 용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정된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 적격 심사를 통해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양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

- 아케이드 구역까지 인정,

전통시장 면적 7,251㎡에서 10,618㎡로 확대 -



이번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정'은 시장 상권 내 인정 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측에서 확대 지정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양양군은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 4일 결정·고시하였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 등 전통시장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 -



양양군은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영양 프로그램과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각각 주 1회씩 운영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현북초등학교 및 인구초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홀로 섬이아동센터 돌봄 아동 등 모두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총 16회 운영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 오는 8월까지 관내 금연구역 2,019개소 지도·점검 및 홍보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0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 및 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양양 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실시

- 이달부터 10월까지 쓰레기 수거, 남대천 수질 오염 예방 -



양양군이 남대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류에서 하구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에 나서고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다량의 쓰레기가 남대천 하천변과 하구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남대천 하천변에 산재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전후에 하천 쓰레기 수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태하천인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깨끗한 관광 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모집

- 오는 8월 5일까지 신규 모집 -



특색 있는 골목상권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 신청 조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여름나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가동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근무자 등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험구역 내 출입통제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사고 상황 전파 등을 위해 8월 말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서면 자율방법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등이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취약지역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안전지도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체리 출하 첫걸음 '체리 품평회'

-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새콤달콤 고품질 체리 출하 첫걸음 -



지난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체리연구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체리 품종 선발 및 고품질 생산 기술 공유를 통해 지역 체리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체리 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체리 품평회'가 개최됐다.

※ 관내 40개 농가가 25종의 품종을 출품, 이중 '강구1호(1위)', '블랙펠2위', '베니테마리(3위)' 순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군은 2019년도부터 과수분야 전략작목으로 체리를 선정하여 지주, 관수, 묘목 식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체리 재배 기반을 조성했다.

항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체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수입 체리에 대응한 경쟁력있는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양양군 로컬푸드 매장 등을 활용한 홍보·유통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원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나눔의 기쁨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2024. 6. 24. 기준



인재육성장학금
김용호 주무관(양양읍)



인재육성장학금
몽모텔(대표 김진수)



인재육성장학금
미래산전(대표 임천식)



인재육성장학금
양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인재육성장학금
해송라이온스클럽



인재육성장학금
백다여 2024 미스강원 眞



인재육성장학금
박미령 소방관 양양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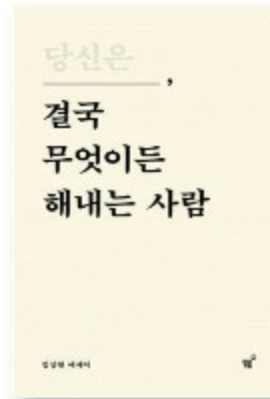
책 이야기 - 이 달의 추천도서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문장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를 통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김상현 작가의 신작이 3년 만에 출간되었습니다. 전작을 통해 인간관계와 행복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문장을 전했다면, 신작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은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희망과 믿음의 문장들로 담아냈습니다.

1장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에서는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불안한 날들 속에서도 결국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2장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에서는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것임을 긍정적인 다짐과 자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에서는 그 어떤 길이라도 멈춰있지만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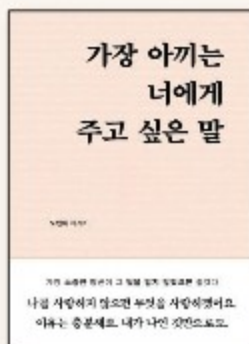


저 자 김상현
발 행 처 필름
발 행 년 2022

언젠가는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삶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이 책이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장 아끼는 너에게 주고 싶은 말

저자 도연화
출판 부크림
발행 2023

“최선을 다한 당신이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힘들음을 끌어안지 말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누구보다 아끼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들, 나는 왜 이렇까 자꾸만 자책하게 되는 시간들, 일에, 인간관계에, 사랑에 지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을 가득 담았습니다.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저자 박여름
출판 히읏
발행 2023

“힘든 일이 오더라도 너무 무너지기만 하진 말자.
더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아픈가 보다 생각하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지만 가끔 아픔을 겪기도 하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지금의 힘든 나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 더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지금 아프고 힘들다는 건, 곧 좋은 일이 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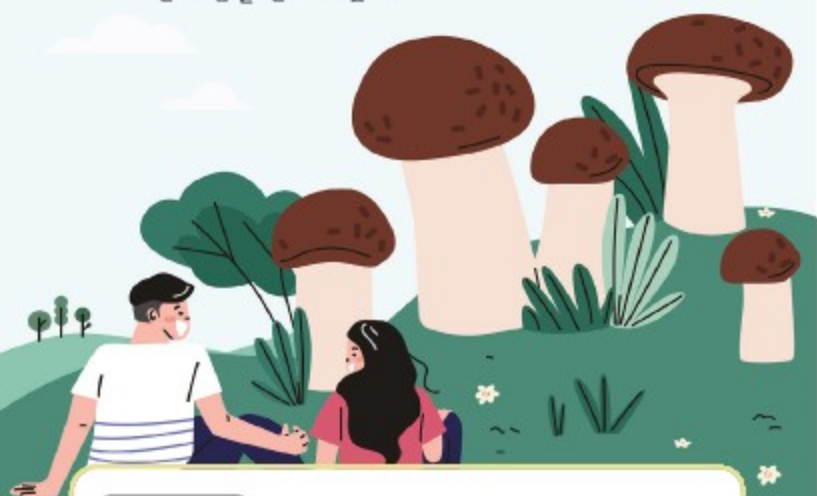
송이쫄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권정남

송이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의 몸을 싸고돌던 청정한 소나무 향과
 삶 속에 끝없이 흘러들 계곡 물소리 같은
 투명한 그의 웃음소리가 그림다

음지에서 자라
 초가을 달빛이 묻어있을 그의 살결과
 바람소리 새소리가 펼쳐질
 그의 옷자락 곁에 서있고 싶다
 송이 같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예언자처럼 입을 열면
 무공해 같은 언어가 종소리 되어
 사방 빛으로 흩어지리라

혼자이면서 혼자일 수 없는 날에는
 사람들 영혼을 오래도록 푸르게 해 줄
 깊은 산 청정한 소나무 향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권정남

1987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
 저서로는 『나사뭇의 기억』 외 6권 출간
 전영태 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여성문학상 외 다수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및 속초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7월)



탈주



빅샤크5 : 80일간의 해저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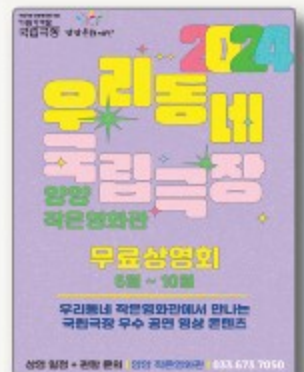
탈출 : 프로젝트 사일런스



데드풀과 올버린



슈퍼배드4



우리동네국립극장 무료상영회

양양작은영화관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 해산, 수산물은 4차선냉장고 냉장수직을 설치된 3단냉고 보관함 보관
 * 큰 용량의 냉장용기는 10kg 이하 용량의 냉장용기에 보관하여 냉장용기를 넘어서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2024년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양양군 소재 골목상권
- 신청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지정혜택
 - 온누리상품권 기맹점 등록
 - 국·군비 보조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대상 자격부여
- 모집기간 : 2024. 6. 10. ~ 8. 5. / 8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본관 3층)
- 제출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상인회등록 서류
-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선정
- 문 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670-2956, 2955)

양양군 일자리 정보

담당부서 :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팀 (☎033-670-2289)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행복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5일)	월214만원 이상
인향재가노인복지센터	2명	재가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시급12,700원(교통비 별도)
집으로방문요양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11:00~14:00(주6일)	시급14,000원
고사리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09:00~12:00 / 14:00~17:00	시급12,500원
(주)세인	2명	용접원(경력자)	08:00~17:00(주5일)	월270만원 이상
주식회사 진환	3명	토목시공기술자(공무포함)	08:00~17:00(주5일)	연4,000만원(협의)
(주)남양인더스트리	1명	스테인레스 절곡기사	08:00~17:00(주5일)	월210만원 이상(협의)
흥부네밥상	1명	홀서빙원	09:00~16:00(주6일)	월220만원
양양서비스기아오토큐	3명	자동차 정비원	09:00~18:00(주5일)	월206만원 이상(협의)
(주)재성정보통신	2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09:00~18:00(주5일)	연2,500만원 이상(협의)
(주)매홍엘앤에프	1명	생산,품질관리원(경력자)	09:00~18:00(주5일)	연3,200만원 이상(협의)
양양수산	1명	생산직(붉은대게)	08:00~17:00(주5일)	월206만원
주식회사 윤진(홈마트)	1명	배송 및 매장진열원	08:30~18:00(주6일)	월300만원
	1명	매장계산원	1일 8시간(시간협의)	월225만원
주식회사 용환경산업	1명	압출 운전원	07:00~16:00(주5일)	월270만원(협의)
강원여객자동차(주)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주5일~6일)	연3,300만원 이상(협의)
(주)폴든에스앤씨(설해원)	2명	한식조리사	1일 8시간 스케줄근무	연3,000만원 이상(협의)
	5명	홀서빙원	1일 8시간 스케줄근무	연3,000만원 이상(협의)
	2명	프론트사무원	1일 8시간 스케줄근무	연3,000만원 이상(협의)

하반기 평생학습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4. 7. 22.(월) ~ 7. 26.(금)
- 교육기간 : 2024. 8. 19.(월) ~ 12. 6.(금)
- 접수대상
 - 양양군민(주민등록기준)
 - 양양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수강 확정 후 증빙서 제출)
- 접수방법
 - 방 문 :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평생학습관 및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불가)
 - 온라인 : 양양군 평생학습관(edu.yangyang.go.kr) 홈페이지 접수
- 주간교육프로그램(22과목)

연번	과목명	인원	시간표	수강료
1	바이올린	10	화/목 오후 13:30~15:30	3만원
2	캘리그래피	12	월/수 오전 10:00~12:00	3만원
3	드로잉	12	화/목 오전 10:00~12:00	3만원
4	문인화	12	화 오후 13:30~17:30	3만원
5	서예	12	수 오후 13:30~17:30	3만원
6	바둑	12	금 오전 10:00~12:00	3만원
7	라인댄스	20	월/수 오후 13:30~15:30	3만원
8	요가	20	화/목 오전 10:00~12:00	3만원
9	일본어회화(중급)	15	월/수 오전 10:00~12:00	3만원
10	영어회화(초급)	15	월/수 오후 13:30~15:30	3만원
11	영어회화(중급)	15	화/목 오전 10:00~12:00	3만원

연번	과목명	인원	시간표	수강료
12	커피핸드드립	12	금 오전 10:00~12:00	2만원
13	한지공예	12	월 오후 13:30~17:30	3만원
14	꽃누르미	12	목 오후 13:30~17:30	3만원
15	실용의상	10	월 오후 13:30~17:30	3만원
16	홈패션	10	화 오후 13:30~17:30	3만원
17	의상리폼	10	수 오후 13:30~17:30	3만원
18	재봉틀기초	10	목 오후 13:30~17:30	3만원
19	정리수납전문가	10	화 오전 10:00~12:00	2만원
20	금융재테크	12	수/금 오전 10:00~12:00	3만원
21	줌바	15	화/목 오전 10:00~12:00	3만원
22	치유요가(구,호흡과명상)	12	수/금 오후 13:30~15:30	3만원

■ 야간교육프로그램(10과목)

연번	과목명	인원	시간표	수강료
1	캘리그래피	12	화 오후 18:30~20:30	2만원
2	영어회화(초급)	15	수 오후 18:30~20:30	2만원
3	영어회화(중급)	15	화 오후 18:30~20:30	2만원
4	가족공예	12	수 오후 18:30~20:30	2만원
5	통기타	12	화 오후 18:30~20:30	2만원
6	금융재테크	12	화 오후 18:30~20:30	2만원
7	재봉틀익히기	10	목 오후 18:30~20:30	2만원
8	커피 핸드드립	12	화 오후 18:30~20:30	2만원
9	소도구 필라테스(남)	15	화 오후 18:30~20:30	2만원
10	소도구 필라테스(여)	15	수 오후 18:30~20:30	2만원

[수강료면제(수납기간내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시 1인 1강좌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결혼이민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국가유공자 증명 확인서), 병역명ता등록자(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에 한함.)
 - 다자녀가족(만18세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족)

[기타사항]

- 각 과목별 준비물 별도 확인
- 1인 최대 2과목 신청가능
- 정원초과과목: 7. 29(월) 15시 전산 추첨
- 수강료 입금 : 수강확정 후 수강료 납부기간 내 납부
(면제자 증빙서류 제출 : 평생학습관)
- 기간 내 미입금자 및 서류 미제출자 수강취소
- 수강중 취소나 전 반기 수강률 50%이하는 해당 과목 신청불가

- * 개강 후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 취업, 입원 등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일부 금액 환불(증빙서류 첨부)
- * 신청자가 많을 시 해당과목 모집정원의 20% 이내 추가 모집(재봉틀 사용 과목 제외)
- * 각 과목별 준비물은 모집기간 내 양양군 평생학습관(edu.yangyan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고, 이에 따른 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수수료 본인 별도 부담
- 문 의 : 양양군평생학습관 ☎ 033-670-2777

함께해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빗물받이란?



- 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 담배꽂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



침수 예방의 작지만 큰 실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